

Detail 디테일

기획_강수미

참여작가_강홍구 이동욱 박진아 이세경 조혜진 이진주 김아영

일정: 2013.4.18(목) - 5.31(금)

장소: 갤러리 시몬(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Detail_그룹전)



갤러리 시몬에서는 지금 여기 한국의 미술을 '디테일'이라는 주제로 들여다보고자 기획전<디테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수미 교수(미학, 평론)의 기획으로 강홍구, 이동욱, 박진아, 이세경, 조혜진, 이진주, 김아영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설치, 사진, 회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옴니버스 형태의 전시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시는 2013년 4월18일(목)부터 5월31일(금)까지 개최된다.

세속적 경험의 편집으로서 디테일 (강홍구)
세계의 촉각적 미니어처로서 디테일 (이동욱)
무작위의 정교함으로서 디테일 (박진아)
디테일 이후의 디테일 (이세경)
투명한 질료의 조각적 디테일 (조혜진)
내러티브의 디테일 (이진주)

사건을 재구축하는 디테일 (김아영)

이상 7가지 의미의 디테일은 <디테일>전에 참여하는 작가 각자의 작품 성향에서 출발해 그 작품들과 현대미술 전반의 경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비평적으로 추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들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디테일(원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을 재차 확인하거나, 미술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의 디테일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작품들은 작품 자체를 대표하지 '디테일'이라는 일반 개념을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곱 작가들 각자의 미술세계 전반이 이 기획전의 담론에 포섭된다거나,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이 반드시 기획자가 정의하는 의미의 7가지 디테일 중 하나로 수렴된다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출품작들은 각자 개별적이고 특정한 조건 속에서 창작된 것들로 애초부터 주제 '디테일'을 의식하며 제작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 전시 기획의 핵심 의도가 있다. 즉, 지금 여기 작가들이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우연찮게 취하고 있는 '디테일'을 우리는 전시를 통해 분별하고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동시대 삶과 문화와 미술의 특정 경향성을 추출해내려는 것이다. 바라건대, <디테일>전에서 위 7가지 의미의 '디테일'이 일곱 작가 작품의 미적 특성으로 발현돼 서로 서로 엮이면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시각 예술의 디테일을 넘어 다면적인 의미의 디테일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동시대 미술을 정의하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이기를 바란다.

기획자 강수미(1969-)는 미학자이자 미술평론가이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에서 서양미술 이론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한국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 서울생활의 재발견」이 있다. 기획한 전시로는 <서울생활의 발견>, <번역에 저항한다>, <푸른 대양 · 청춘의 개화>가 대표적이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올해의 예술상 전시기획상, 2007년 석남젊은이론가상을 수상했고, 2012년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철학분야'에 선정됐다.